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창립 2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박인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초대 운영위원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고문)

우리 기계설비인들은 1976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정기준을 갖춘 신규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설비계열로는 위생·냉난방 161개사, 기계기구설치 39개사 등 총 200개 업체가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 200개 업체는 여타 16개 단종공사업 면허 취득업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단종회원으로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는 설비를 포함한 단종회원 수가 총 658개 업체, 921개 면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내에 전문건설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설관련 제도개선 추진 및 회원 간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협회 업무의 분담기구인 전문회원 전국협의회를 1977년 2월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하여 전문회원들에 대한 회비징수권과 예산집행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1985년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독립할 때까지 9년여 간 전문건설업계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 후 전문건설업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면허제 도입 8년만인 1984년에는 전국에 4,827개

업체와 면허업체 수는 8,539개가 되었습니다. 이 중 설비업체 수는 1,347개사였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원·하도급 상의 문제점, 회원의 권익옹호, 각종 제도개선 등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들은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 독립단체 설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84년 12월 건설업법 개정으로 1985년 9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는 설비공사를 포함한 19개 전문건설업종 전체가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전문협회는 설립과 동시에 전문건설 19개 업종의 각기 다른 업종별 고유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협회 내에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업종도 설비공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동락[대일공무(주) 대표]씨를, 부위원장에 박인구[삼원설비기계(주) 대표]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비공사협의회는 전문협회 내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독자적인 예산과 사무인력 부족으로 설비업계의 고유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역시 19개 전문업종 간의 이질성 때문에 협회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설비공사업은 시공기술 및 장비·기자재 사용 등 현장관리 면에서 여타 전문공사와는 무관한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특성과 업종의 이질성, 독자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19개 전문공종과 복합적으로 공조함으로써 설비 고유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설비업체는 ‘건설업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설비공사업의 육성발전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별도의 독립단체 설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건설업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설비업계에서도 전국의 대표 33인이 모여 설비공사협회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장에 이동락씨를, 부위원장에 박인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전국에 분포한 설비공사업체에서 협회설립 추진 동의서를 받아 정부요로에 진정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단체 설립근거인 건설업법 개정 추진작업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설비업계가 독립할 경우 다른 전문공사업종도 독립 요청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전문협회 와해 및 하도급업계의 발언권 약화’를 이유로 설비공사협회의 분리,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설업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수없이 겪기도 하였고,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는 등 눈물을 머금고 참고 견뎌온 시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은 고통 속에서도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추진한 결과 1988년 12월 꿈에 그리던 설비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

다. 이후 1989년 7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각 시·도별로 결성 총회를 개최하여 전국 대의원 78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마침내 1989년 10월 29일 힐튼호텔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89년 11월 2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협회설립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출범, 설비공사업계의 권익보호와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대표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설비업계는 꿈에 그리던 독립협회설립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을 영위하는 회원사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통해 회원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수주공사의 시공상 완벽을 기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공제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자금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설비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신용도와 위상제고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조합설립의 꿈을 본격화 하기 위해 1994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설비공사공제조합 독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조합설립을 위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주춤거리면서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뜻밖에도 1995년 9월 초 협회 회장으로 있던 이동락 회장의 회사인 대일공무(주)가 부도처리됨으로써 조합설립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업계는 조합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건교부는 물론 국회까지도 서슴치 않고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업계에서는 “조합 설립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서울시회 박인구 회장 밖에 달리 대안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계속 추진하라”는 무언의 바람이 컸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건교부를 비롯하여 국회까지 실 틈없이 뛰어다니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이어서 설비조합법이 여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 자체가 폐기되기 때문에 더더욱 심혈을 쏟았습니다. 저는 ‘국회 통과만 남았기에 오직 길은 하나 뿐, 남은 4개월 동안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꼭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길은 없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5년 9월 초 건설교통부 경제국으로부터 조합설립 반대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교부에 이어 국회 건설분과위원장이었던 박○○ 의원께서도 곧바로 반대를 하였기에 갈 길은 더욱더 암담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다행히도 우리 협회 회원사인 경북도회 최용락 회장과 상의를 한 결과 최용락 회장께서 적극 나서면서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는 등 많은 수고를 하심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후 건교부로부터 건설업법 개정안이 국회로 이송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도 고심하고 힘들었던 법이 국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무 감사하

다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교통부 유상열 차관님과 김건호 실장님께서 애써 주셨기에 가능했으며,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건설분과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진형 의원님과 야당의 이한수 의원님께도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비가 한번 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설비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 개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5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 경제과장으로부터 “감사원에서 설비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하면 안된다는 공문과 전통이 하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는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구비구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하면서 경제과장을 만나 그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에 대한 대처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적극 노력한 결과 감사원의 김종철 감사위원께서 사태 수습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6년 5월 9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한설비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업무개시 후 모든 보증업무를 순조롭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 다음 해인 1997년 11월 ‘IMF’라는 국가 최대의 금융위기가 닥쳐오는 바람에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설립 당시 3,000여개 조합원수와 1,44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직후 3,000억원의 보증채무는 물론 경영난을 이

기지 못한 300여개의 조합원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조합원이 줄어드는 등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태로 부도 후 회생하지 못한 조합원사가 많았던 것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구나 자본금 1,440억원으로는 3,000억원의 보증채무를 절반도 갚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조합이 공중분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었던 것입니다. 박원석 초대 이사장과 박인구 초대 운영위원장은 매일 퇴근시간 이후부터 밤 늦도록 그날그날의 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하곤 했습니다. 임직원들도 퇴근을 마다하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는 한편 보증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는 등 구제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사태 직후부터 계속해서 정리도 하고 탕감도 받는 등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후 몇 개월 동안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때 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립 초기 크나큰 고비를 넘긴 후 조합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흥평우 2대 운영위원장께서는 IMF 이후 알찬 경영으로 경영위기에선 완전히 벗어남은 물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옥을 마련(1999년)함으로써 기계설비건설인의 요람과 함께 조합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대 정승일 운영위원장께서도 설비건설회관을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사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오늘날 기계설비건설회관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기계설비건설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5대 박종학 운영위원장님, 6대 강석대 운영위원장님, 7대 정해돈 운영위

원장님, 8대 이상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이사장님들께서 조합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터넷을 통한 보증 용자 및 전자 약정 등 업무전반의 전산화를 이룩하여 IT조합으로 위상을 정립하였고, 조합원사를 위한 업무편의 증진, 근로자 재해 및 영업 배상보험 등 각종 공제상품 개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 20년간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위기 속에서도 우리조합이 성장을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운영위원장님, 역대 이사장님,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입니다. 조합 설립자로서 노조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업무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노사 공히 쌍방 간의 소통을 통해 면밀한 연구검토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부탁에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합은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더욱 일취월장 하시기를 바라며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더 크게 성장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합원의 권익옹호는 물론 재정 및 금융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지원 체제를 좀더 폭넓게 확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조합 설립자로서 강산이 두 번 바뀌는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감회에 젖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